

치즈테마파크에 유럽풍 펜션이?

임실군, 치즈펜션 준공식... 3층 규모 8객실로 국비 3억2000만원 포함 총 11억원 투입

임실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유럽풍 펜션이 들어왔다. 전국적인 관광 유행과 임실치즈축제 성공의 효자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머물 수 있는 숙소가 마련됨에 따라 명실상부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더해 나갈 전망이다.

25일 임실군은 심 민 군수와 신대용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가업체 대표 및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임실치즈펜션' 준공식을 가졌다.

임실치즈펜션은 임실·순창·남원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특화자원 MICE산업의 일환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숙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어졌다.

총 사업비는 국비(3억2000만원)와 도비(2400만원), 군비(7억5600만원)를 포함하여 11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해 4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됐다.

숙박시설 규모는 연면적 438.6㎡에 지상 3층 규모이며, 객실 수는 8실로 4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앞으로 2개동에 16실 규모의 숙소들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찾는 대표적인 체험형 복합 문화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임실치즈축제 때는 40여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몰릴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인기가 많다. 4만여평의 드넓은 초지와 유럽풍의 경관으로



25일 임실군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임실치즈펜션' 준공식을 가졌다.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돼 왔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에 있는 성수산과 옥정호 등 연계 관광지를 두루 돌아다니고 싶어도 제대로 된 숙소가 없어 관광객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유럽풍의 스위스식 펜션을 건립, '머무는 임실'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가을에는 국화꽃과 함께하는 임실치즈축제를 열고, 봄에도 장미

꽃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어, 숙소동 건립은 관광객들의 숙박편의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재 군은 봄에도 축제를 열기 위해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장미공원을 조성한다.

심 민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임실군은 성수산, 옥정호,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숙박시설이 없어서 지나가는 관광객이 많아 아쉬움이 컸다"며 "임실치즈펜션 준공으로 체류형 관광 유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임실을 열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밀착형 의료급여사례관리로 예산절감 효과

순창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에서 '2018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11월 1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장관 주관 '의료급여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표창과 포상금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에 주요했던 점은 의료급여관리사의 꾸준한 사례관리를 들 수 있다.

관외 부처정 장기입원자의 요양병원을 방문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 실태를 조사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장기입원자 심사연계

및 의료보험 과다이용자인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사례관리가 이번 수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랑했다.

이선호 주민복지실장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선정은 의료급여사업 기반의 체계적 구축 등의 노력이 높게 평가돼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의료급여 전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업무 연찬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기간 열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연찬회가 지난 24일부터 2일간 업무 연찬회를 가졌다.

연찬회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일

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 및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갈수록 어려움이 직면한 농촌을 위해 준비된 정책 등을 심도 있게 살펴봤으며,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예산과 불편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업

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검토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김종관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10월의 하늘' 강연

뇌 과학자로 유명한 정재승 교수 초청

순창군(군립도서관)이 오는 27일 장남감도서관 2층(수영장옆)에서 과학자들의 재능기부행사인 '10월의 하늘' 과학강연을 연다.

이 강연은 뇌 과학자로 유명한 정재승 교수가 2010년 SNS 트위터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과학강연 기부행사다.

제9회 10월의 하늘 과학강연 행사는 10월의 하늘 준비모임(대표 정재승)이 지난 9월 전국 1010여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25개 도서관을 선정했다.

전북지역에서 순창군립도서관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전국 25개 도서관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에 열리는 강연은 '오늘의

과학자가 내일의 과학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1부 강연은 한국 에너지기술원 이동원 연구원, 2부는 소설위크 한왕근씨가 강연자로 나선다.

군은 이번 강연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군립도서관에서는 참석자 전원에게 신간도서 1권을 나눠줄 예정이어서 호응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강연에 참가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접수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 군립도서관(063-650-5678)으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2호점 오픈

순창군이 행복장터 2호점 개장으로 순창군 농산물 판로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창군은 지난 9월에 임시개장한 광주대구방향 고속도로 대구방향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개장했다. 이와 관련된 군은 25일 행복장터에서 황숙주 순창군수를 정성균 순창군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졌다.

광주방향 행복장터가 이번엔 오픈할 대구방향 행복장터는 연 매출 3억원 이상이 기대되고 있다.

행복장터 위탁 운영자인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리더(REDONE)은 강천산휴게소 뿐만이 아닌 전국휴게소 및 대형유통업체에 순창지역 농특산물이 판매 될 수 있도록 유통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대구방향 행복장터를 열 수 있도록 승인해 준 한국도로공사와 (주)원일유통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농산물 판매 유통망 확충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 아리

남원의료원 직원 친절교육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지난 24일 지하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부고객 만족을 위한 하반기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금오공과대학교 경영컨설팅 대학원 최소운 교수를 초빙해 의부고객 만족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방법을 주제로 고객만족과, 불만고객 응대법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장 내 직원 상호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변화 등을 통해 더욱 친절한 남원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남원시는 지난 24일 민원담당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인과 공무원이 다함께 만족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가 친절 감사!'라는 주제로 전 직원이 참여해 그동안 민원 현장에서 경험한 민원인과의 응대 요령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친절 방안을 찾아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와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시연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남원시 민원실은 매일 2회 시민감동 친절 교육을 실시해 친절 마인드를 높여 공감과 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친절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매일 아침 '싱글벙글'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인 응대하기, 웃음치료 강사의 친절 이미지 메이킹 교육, 힐링 휴-리프레시 교육을 통해 활기차고 행복한 에너지를 충전해 남원시를 찾는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양완철 남원시 민원과장은 "1%의 긍정적인 친절 마인드가 100%의 친절이미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친절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친절 민원실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